

嶺南地方의 新石器時代 土器 研究 現況

安 春 培*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調査·研究成果 |
| 2. 研究現況 | 5. 新石器時代 土器 研究의 諸問題 |
| 3. 主要遺蹟 | 6. 맺음말 |

1. 머리말

한반도 남부 지방의 신석기시대 문화에 관한 연구는 서울 岩寺洞 유적을 중심으로하는 漢江 유역의 櫛文土器와 釜山 東三洞·瀛仙洞 패총을 중심으로 하는 東南海岸 島嶼地方의 隆起文土器와 瀛仙洞式土器 그리고 東海岸의 襄陽 鰲山里式土器의 起源과 擴散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남지방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1930년대부터 보고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 신석기문화연구의 한 축이 되어 왔다. 영남지역의 신석기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중심은 1930년대에 발견된 동삼동·영선동·신암리 등의 패총유적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었고, 남해 도서지방에서 새롭게 발견된 유적과 사천 구평리 패총 자료가 추가된 정도였다. 이 시기에 藤田亮策·有光教一·佐藤達夫 등 일인학자들은 과거의 수집자료를 정리하여 한국 신석기시대 고고학의 골격을 구축하는 기초작업에 착수하고, Albert. Mohr와 L.L. Sample은 東三洞 패총에 대한 層位的 試掘을 통하여 편년작업에 착수한데 비하여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외국인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인용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데 그친 것은 당시 한국고고학의 수준과 여건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내 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본격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지만 조사나 연구대상 유적은 부산지역의 패총유적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연구인력도 부산대

* 新羅大學校 史學科 교수

학교와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최종규씨에 의해서 신석기시대 토기에 관한 전공논문¹⁾이 나온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1970~1980년대 이르는 기간에 한국 신석기문화연구는 國內 學者들이 主導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때부터 韓國 新石器文化研究의 學脈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하겠다. 그것은 서울대학교와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金元龍·任孝宰·金鐘徹-任鶴鐘(계명대)-申鍾煥(계명대)·韓炳三·韓永熙·安承模 등, 釜山大學校를 중심으로 한 金廷鶴-崔鐘圭·鄭澄元 등,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손보기·신숙정·이기길 등, 東亞大學校를 중심으로 한 金東鎬·沈奉謹 등이고 일본쪽에서는 慶應大學의 江坂輝彌·廣瀨雄一 등을 들수 있다.

1980~199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국토개발의 진전에 따른 많은 신석기시대 유적의 발견 및 발굴 그리고 자료의 급격한 증가로 신석기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고, 1990년 이후에는 신예의 연구자들이 다수 등장하여 서울대학교의 金壯錫·宋銀淑·林尙澤, 동아대학교의 李東注·田中聰一·崔鐘赫, 釜山廣城市立博物館의 河仁秀, 日本 留學派로 李相均 등의 활약이 주목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 영남지방의 신석기문화에 관한 연구는 1990년에 와서 토기의 제작기법이나 생산활동에 관한 문제들도 다루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신석기시대 토기문화의 기원과 편년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용기문토기의 기원과 편년에 관한 문제와 즐문토기와 조오몽토기와의 관계, 남부지방 즐문토기의 편년, 영선동식토기의 분포범위와 암사동식토기와의 관계, 각종 토기형식의 분류와 양식에 관한 문제가 중심이 되어 왔다.

한국 고고학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 경향은 1970년대 초에 이미 한국 고고학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²⁾ 그로부터 30년이 가까운 아직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다.

필자는 여기서 영남지방 신석기시대 토기의 연구성과와 현황을 살펴서 한국 신석기문화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1) 崔鐘圭, 『幾何文土器 編年表 作成을 위한 小考 -특히 甕과 鉢을 中心으로-』(釜山大 碩士論文), 1977. 2.

2) 西川 宏(原著)·洪淳昌(譯), 「한국고고학의 계통론에 대하여 -신석기시대의 경우-」 『嶺南史學』, 1972.

2. 研究現況

우선 아래에 영남지방 신석기문화연구와 관련된 조사·연구성과를 연도순으로 실어 연구의 진전상황을 소개한다.

1930~1940년대

- 1933 及川民次郎, 「南朝鮮牧ノ島東三洞貝塚」 『考古學』 4-5
 1933 横山將三郎, 「釜山絶影島東三洞貝塚報告」 『史前學雜誌』 5-4
 1935 齋藤 忠, 「慶尙南道蔚山郡西生面出土의 '櫛目文様' 土器片」 『考古學雜誌』 25-6
 1936 有光教一, 「朝鮮瀛仙町の貝塚に就いて」 『人類學雜誌』 51-2

1950~1960년대

- 1958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桐書院
 1961 松本雅明 外, 「甌式土器の編年」 『考古學雜誌』 47-3
 1962 有光教一,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3
 1964 金元龍, 「韓國文化의 考古學的 研究」 『韓國文化史大系』 I,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65 金龍基, 『農所里貝塚發掘調査報告書』 부산대학교박물관
 1966 Albert. Mohr 外, 「朝鮮新石器時代初期の土器編年に關する新資料」 『朝鮮學報』 41
 1966 佐藤達夫, 「朝鮮有文土器の變遷」 『考古學雜誌』 48-3
 1967 任孝宰, 「東萊 新岩里 打製石器 一括」 『考古美術』 8-1
 1967 鄭永鎬, 「泗川舊坪里貝塚發掘調査概要」 『考古美術』 8-8
 1968 金元龍·任孝宰, 『南海島嶼考古學』,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68 金廷鶴, 「韓國幾何文土器文化의 研究」 『白山學報』 4
 1968 任孝宰, 「慶南 東萊郡 西生面 出土 隆起文土器」 『考古學』 1

1970년대

- 1971 金龍基, 「多大浦貝塚發掘調査報告」 『釜山史學』 2
 1973 金元龍, 「新石器文化」 『韓國史』 1, 國史編纂委員會
 1973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74 L.L.Sample, 「Tongsamdong : A Contribution to Korea Neolithic Culture History」 『Arctic Anthropology』 XI-2
 1974 金鐘徹, 「梁山郡 西生面 新岩里 先史遺蹟」 『博物館新聞』 45호 제2면

- 1974 金鐘徹, 「梁山郡 西生面 新岩里 遺蹟」 『韓國考古學年報』 2
- 1974 坂田邦洋, 「櫛目文土器の新資料」 『對馬風土記』 11
- 1975 韓炳三, 「新石器時代」 『韓國史大系』 1
- 1976 韓炳三 外, 「朝島貝塚」, 국립박물관
- 1977 崔鐘圭, 「幾何文土器 編年表 作成을 위한 小考 -특히 甕과 鉢을 中心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 1978 林墩, 「朝島貝塚出土 遺物 小考 -櫛文土器를 中心으로」 『論文集 <人文
· 社會科學篇>』 13, 한국해양대학
- 1978 鄭澄元, 「山達島貝塚 遺物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文理科大學論文集』 17
- 1978 坂田邦洋, 「韓國隆起文土器の研究」, 昭和堂印刷
- 1979 韓炳三, 「櫛目文土器」 『世界陶磁全集』 17, 小學館

1980년대

- 1980 金東鎬, 「韓國 東南海岸 島嶼의 先史土器とその文化」 『考古學ジャーナル』 183
- 1980 金廷鶴, 「幾何文(櫛文)土器의 編年」 『考古學ジャーナル』 183
- 1980 金廷鶴 · 鄭澄元, 「金谷洞 栗里貝塚 -岩蔭住居遺蹟-」, 부산대학교 박물관
- 1980 鄭澄元, 「新石器時代丹塗磨研土器에 대한 一考察」 『釜山史學』 4
- 1981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일지사
- 1981 鄭澄元 외, 「金海水佳里貝塚 I」, 부산대학교박물관
- 1982 손보기, 「상노대도의 선사시대 살림」, 수서원
- 1982 安春培, 「山淸 江樓里 先史遺蹟」 『釜山直轄市立博物館年報』 第4輯
- 1983 申叔靜, 「新石器時代 - 土器의 成分分析」 『韓國史論』 12, 국사편찬위원회
- 1983 任孝宰, 「放射性炭素年代에 의한 韓國新石器文化의 編年 연구」 『金哲堉
博士 華甲記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 1983 任孝宰, 「新石器時代 - 土器의 時代的 變遷過程」 『韓國史論』 12, 국사편
찬위원회
- 1983 任孝宰, 「新石器時代 - 編年」 『韓國史論』 12, 국사편찬위원회
- 1983 趙榮濟, 「西部慶南 先史文化 地表調査報告」 『釜山史學』, 부산사학회
- 1983 韓永熙, 「新石器時代-地域的 比較」 『韓國史論』 12, 국사편찬위원회
- 1984 廣瀨雄一, 「韓國南岸地域의 櫛目文土器の研究」 『考古學의 世界』 3
- 1984 廣瀨雄一, 「韓國隆起文土器論」 『異貌』 11
- 1984 金東鎬, 「上老大島의 先史文化研究 序說」 『大學院 論文集』 VIII, 동아대학
교 대학원

- 1984 金東鎬, 「瀛仙洞貝塚의 再檢討」 『釜山史學』 8
- 1984 金東鎬, 『上老島』, 동아대학교박물관
- 1984 小原 哲, 「韓國隆起文土器の檢討」 『伽倻通信』 13·14合輯
- 1985 廣瀨雄一, 「櫛目文土器の前期の研究 -韓國南海岸地域における編年を中心として」 『伽倻通信』 13·14合輯
- 1985 廣瀨雄一, 「韓國新石器時代石器研究史 -初期の研究を中心として-」 『聖心外國語專門大學論文集』 第三輯
- 1985 鄭澄元, 「南海岸地方 隆起文土器에 대한 研究 -型式分類와 編年을 中心으로-」 『釜大史學』 9, 부산대학교 사학회
- 1986 甲元眞之, 「櫛目文土器と繩文土器との關係」 『韓國美術』 1 古代美術, 講談社, (金元龍 編)
- 1986 廣瀨雄一, 「韓國隆起文土器の系譜と編年」 『異貌』 12
- 1986 宮本一夫, 「朝鮮有文土器の編年と地域性」 『朝鮮學報』 121
- 1986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제3판, 一志社
- 1986 서국태, 『조선의 신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 1986 小原 哲, 「朝鮮櫛文土器の變遷」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上)
- 1986 任孝宰, 「新石器時代의 韓·日文化交流」 『韓國史論』 16, 국사편찬위원회
- 1986 鄭永和, 「東三洞 地表採集 石器」 『嶺南考古學』 2
- 1986 鄭澄元, 「山達島貝塚 出土 櫛文土器壺」 『嶺南考古學』 1
- 1987 沈奉謹, 「陝川 鳳溪里 出土 先史遺物 新例」 『三佛金元龍教授停年紀念論叢』(I) 考古學篇
- 1987 安春培, 「居昌 壬佛里 天德寺址 및 陝川 界山里 發掘調査概報」 『嶺南考古學』 3, 영남고고학회
- 1988 國立中央博物館, 『新岩里 I』
- 1988 宮本一夫, 「中國東北地方の早期新石器時代の石器群」 『歷史學と考古學 高井 悌 三郎先生喜壽紀念論集』
- 1988 沈奉謹, 「陝川 鳳溪里 先史遺蹟 調査概報」 『考古歷史學志』 4, 동아대학교 박물관
- 1988 安承模, 「新石器時代」 『韓國考古學報』 21
- 1988 安春培, 「居昌 壬佛里 先史遺蹟 發掘」 『嶺南考古學』 5
- 1988 安春培, 「거창 임블리유적 발굴진전보고」 『한국고고학에 있어서 과학적 분석의 검토』, 한국고고학회
- 1988 임효택 외, 『大也里住居址』 I, 동의대학교 박물관

- 1989 廣瀨雄一, 「韓國南部地方櫛目文後期の變遷」 『九州考古學』 64
- 1989 廣瀨雄一, 「韓國嶺南地方櫛文土器前期の土器變遷」 『考古學の世界』 5, 新人物往來社
- 1989 廣瀨雄一, 「韓國櫛目土器の編年」 『季刊考古學』 38
- 1989 국립중앙박물관, 『新岩里Ⅱ』
- 1989 국립진주박물관, 『欲知島』
- 1989 權相烈, 「경남 통영군 연곡리 패총 발굴조사 개보」 『박물관신문』 211호
- 1989 金東鎬·朴九秉, 『山登貝塚』, 부산수산대학박물관
- 1989 大塚達朗, 「草創期の土器」 『繩文土器大觀』 1, 小學館
- 1989 신숙정, 「상노대도 조개더미유적의 토기연구」 『白山學報』 6
- 1989 申鍾煥, 「蔚山 新岩里遺蹟」 『嶺南考古學』 6
- 1989 沈奉謹, 『陝川鳳溪里遺蹟』, 동아대학교 박물관
- 1989 安春培, 「居昌 壬佛里 先史住居址 調査概報(1)」 『嶺南考古學』 6
- 1989 안춘배, 「임블리 신석기시대 주거지에 대하여 -유구의 중복관계와 출토 유물의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23
- 1989 이기길·황성옥, 「동삼동 유적에서 나온 신석기시대 덧문지름무늬토기의 연구 I」 『古文化』 34
- 1989 李亨求, 「渤海沿岸 빗살무늬土器文化의 研究」 『韓國史學』 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1989 任鶴鐘, 「煙臺島貝塚發掘調査」 『가야』 3, 가야문화사
- 1989 임효택 외, 『大也里住居址』Ⅱ
- 1989 張明洙, 「蟾津江下流의 貝塚文化」 『古文化』 34
- 1990년대**
- 1990 廣瀨雄一, 「隆起土器の諸問題」 『考古學の世界』 6
- 1990 국립광주박물관, 『突山松島Ⅱ』
- 1990 이기길 외 2인, 「동삼동 유적에서 나온 신석기시대 덧문지름무늬토기의 연구Ⅱ」 『古文化』 36
- 1990 鄭澄元, 「南海岸地方 初期 櫛文土器의 一檢討」 『嶺南考古學』 7
- 1991 金壯錫 外 2人, 「한반도 신석기 문양명칭 일람표」 『韓國考古學報』 26
- 1991 宋銀淑, 「韓國南海岸地域 新石器文化에 對한 考察」(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991 李東注, 「韓國 南部內陸地域의 新石器時代 有文土器研究」 『韓國上古史學報』 7

- 1991 鄭澄元, 「中國東北地方의 隆起文土器」 『韓國考古學報』 26
- 1991 鄭澄元, 「朝島貝塚 出土 南海岸式 櫛文土器」 『考古歷史學志』 7, 東亞大學校 博物館
- 1991 韓永熙·任鶴鐘, 「煙台島 조개더미 斷崖部Ⅱ」 『韓國考古學報』 26
- 1992 慶尙南道, 『南江 澗水沒地域地表調查報告書』
- 1992 李東注, 「南海岸 島嶼地方의 先史文化資料(1)」 『考古歷史學志』 8, 동아대
- 1992 채규돈·김원경, 「大項貝塚」 『加德島 文化遺蹟 地表調查 報告書』, 부산여대 박물관
- 1992 계명대 박물관, 『금릉 송죽리 선사유적발굴조사 계획』(1992. 6. 27 조사위 자료)
- 1992 계명대 박물관, 『金陵松竹里遺蹟發掘調查』(지도위원회 1992. 11. 14)
- 1993 釜山水大博物館, 『北亭貝塚』
- 1993 矢野健一, 「押型文土器의 起源と變遷」 『考古學雜誌』 78-4
- 1993 李東注, 「동아시아에 있어서 韓國의 初期新石器文化에 대하여」 『동아시아의 新石器文化』(文化財研究所 國際學術大會 發表論文 第2集)
- 1993 李東注, 「欲知島 貝塚 出土 有文土器에 對한 研究」 『第7回 釜山-九州 考古學共同研究會 發表論文集』
- 1993 李東注, 「韓國 隆起文土器와 日本 轟式土器에 대하여」 『釜山女大史學』 10·11
- 1993 林尙澤, 『韓國 隆起文土器 研究』(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993 任鶴鐘, 「韓半島 南海岸 前期 櫛文土器의 研究 -口脣刻目土器를 中心으로」 『第7回 釜山-九州 考古學共同研究會 發表論文集』
- 1993 任鶴鐘, 『南海岸 新石器時代 初期의 土器文化에 對한 一考察』(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1993 鄭澄元, 「신석기시대 연구동향」 『韓國史論』 23, 국사편찬위원회
- 1993 曹永鉉, 「金陵 松竹里 遺蹟 發掘調查」 『三韓社會의 考古學』(제17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 1993 趙顯福, 『嶺南內陸地方出土 櫛文土器에 對한 一考察 -型式 分類와 編年을 中心으로-』(동의대 석사학위논문)
- 1993 中山清隆 外, 「島根縣水田ノ上遺蹟と韓國慶尙南道新岩里遺蹟의土偶」 『考古學雜誌』 79-1
- 1993 河仁秀 外, 『凡方貝塚』 I, 부산직할시립박물관
- 1993 河仁秀, 「凡方貝塚 發掘調查 成果」 『第7回 釜山-九州 考古學共同研究會 發表論文集』
- 1993 河仁秀, 「前期 櫛文土器의 一型式」 『博物館研究論集』 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 1993 韓永熙·任鶴鐘, 『煙臺島 I』, 국립진주박물관
- 1994 계명대박물관, 『金陵松竹里遺蹟特別展圖錄』,
- 1994 金子浩昌·中山清隆(安德任 譯), 「東三洞貝塚과 動物有存體資料 -L.L. Sample씨 등의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31
- 1994 釜山大學校博物館, 『淸道 梧津里 岩蔭 遺蹟』
- 1994 李東注, 「동아시아에 있어서 韓國의 初期 新石器文化에 대하여」, 『東아시아의 新石器文化』, 문화재연구소
- 1994 任鶴鐘, 「新石器時代 口脣刻目土器 小考」, 『考古學誌』 6
- 1994 鄭澄元 外, 『淸道梧津里岩蔭遺蹟』, 부산대학교박물관, 1994.
- 1994 鄭澄元, 「淸道 梧津里遺蹟 出土 櫛文土器」, 『제2회 조선연구 환태평양 국제 학술회의 발표논문』
- 1995 李康承 외, 「新石器·青銅器時代 遺蹟 調査」, 『屯山』忠南大學校 博物館
- 1995 李東注, 「環東海地域의 舊石器時代末~新石器時代 初期의 文化交流樣相에 대하여」, 『東아시아 舊石器文化 研究의 諸問題』, 韓國古代學會
- 1995 李相均, 「新石器時代における 韓國南岸と九州地方の文化交流」(東京大 博士論文)
- 1995 任孝宰, 「韓·日文化交流史의 새로운 發掘資料」, 『濟州道 新石器文化의 源流』(발표요지), 한국신석기연구회
- 1995 河仁秀, 「鰲山里土器의 再檢討 -III·V層 出土 土器를 中心으로-」, 『博物館研究論集』, 釜山廣域市立博物館
- 1995 河仁秀, 「指頭文土器의 考察」, 『釜山史學』 28
- 1995 韓永熙, 「新石器時代」, 『韓國考古學의 半世紀』, 한국고고학회
- 1996 金賢峻, 「慶州市 皇城洞267遺蹟 發掘調査概報」, 『新羅考古學의 諸問題』, 한국고고학회
- 1996 沈奉謹, 「蔚山 牛峰里遺蹟 出土 新石器時代 磨製石器」, 『嶺南考古學』 18
- 1996 李東注, 『韓國 先史時代 南海岸 有文土器研究』(동아대 박사학위논문)
- 1996 李相均, 「韓國南岸의 瀛仙洞式と西北九州の西唐津式土器의 諸樣相」, 『考古學雜誌』 81-1
- 1996 河仁秀, 『凡方貝塚』II, 부산광역시립박물관
- 1996 洪鎮根, 「慶州市 陽南洞 下西里 新石器時代遺蹟」, 『國立慶州博物館年報』
- 1997 東亞大學校博物館, 「上村里 新石器遺蹟」, 『嶺南考古學』 20
- 1997 東義大學校博物館, 「상촌리(上村里) 제1호 지석묘 및 토기 산포지 제1유적」, 『嶺南考古學』 20

- 1997 新羅大學校 加耶文化財研究所, 「산청 소남리유적 1, 2차」 『嶺南考古學』 20
- 1997 沈奉謹 外, 『蔚山牛峰里遺蹟』,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7 安德任, 「신석기시대 남해안 지역의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2)」에 대한 토론 (약정토론) 『嶺南地域의 新石器文化』, 영남고고학회
- 1997 李東注, 「新石器時代 新岩里式期와 瀛仙洞式期の 몇 문제점에 대하여」 『嶺南地域의 新石器文化』, 영남고고학회
- 1997 李東注, 「全面施文沈線文土器의 展開와 擴散」 『古文化』 50
- 1997 李相均, 「新石器時代 新岩里式期와 瀛仙洞式期の 몇 문제점에 관한 小考」 『嶺南地域의 新石器文化』, 영남고고학회
- 1997 任鶴鐘, 「嶺南地域 隆起文土器의 諸問題」 『嶺南地域의 新石器文化』, 영남고고학회
- 1997 田中摠一, 「韓國 新石器時代 隆起文土器에 대하여」 『文物研究』創刊號, 1997.
- 1997 崔鐘赫, 「신석기시대 남해안지역의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2)」
- 1997 河仁秀, 「嶺南地方 隆起文土器의 再檢討」
- 1997 河仁秀, 「瀛仙洞式土器 小論」 『嶺南考古學』 21,
- 1998 경상남도, 『남강선사유적』
- 1998 沈奉謹, 「晋州上村里遺蹟出土 新石器時代 甕棺」 『文物研究』 2
- 1998 安春培, 「산청 소남리유적(山淸 召南里遺蹟)」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 成果』
- 1998 李東注, 「上村里 新石器遺蹟」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 1998 李相均, 「韓國 南海岸의 瀛仙洞式土器와 西北九州 西唐津式土器의 諸樣 相」 『新石器時代의 韓日 文化交流』
- 1998 田中摠一, 「韓國新石器時代前期의 一樣相 -南部地方 瀛仙洞式土器 編年試 論-」 『考古歷史學志』(13·14合輯)
- 1999 金良美, 『牧島貝塚』, 국립진주박물관
- 1999 부산시박 복천분관, 『동삼동 패총』(유적발굴조사 설명회 자료집 1)
- 1999 新羅大學校博物館, 「울산 성암동패총」(보도자료)
- 1999 李東注, 「한국 즐문토기의 발생과 전개에 대하여」 『'99 韓·日 學術심포 지움』
- 1999 河仁秀, 「동삼동패총 발굴성과와 의의」 『'99 韓·日 學術심포지움』
- 1999 漢陽大 博物館, 『晋州 上村里 2號 支石墓 및 先史遺蹟』(南江댐 水沒地區 發掘調 査 報告書 第11冊)
-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 『襄陽 柯坪里』(先史遺蹟發掘調查報告書)

3. 主要遺蹟

영남지방의 주요 신석기시대 유적과 신석기시대의 토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의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부지방 신석기시대의 연구는 1929년에 있었던 부산 동삼동 패총의 발견을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부산 동삼동 패총의 발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영남지방 신석기문화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동삼동 패총의 층위와 출토유물 그리고 그에 따른 편년은 한국 신석기문화연구의 표준이 되어왔다. 먼저 1929년에 발견되어 1930년부터 1999년까지 3차례의 시굴과 2차례의 발굴이 이루어진 동삼동 패총의 조사경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東三洞 貝塚의 調査 經過

1929년	동래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 교사 오이가와(及川民次郎) 발견
1930년	요코야마(橫山將三郎)의 2차에 걸친 시굴조사
1932년	오이가와(及川民次郎)와 부산 고고학회원의 2차에 걸친 시굴조사
1963~1964년	미국 위스콘신대학 모어(A. Mohr) 및 샘플(L.L. Sample)의 시굴조사
1969~197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3차에 걸친 정식 발굴조사
1979년	사적 제266호로 지정
1999년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수습발굴조사 ³⁾

영남지역에는 東三洞 패총 이외에도 해안 및 도서지방의 水佳里, 上老大島, 山登, 欲知島, 煙臺島, 牧島, 凡方, 新岩里, 牛峰里 등의 유적과 내륙지방의 壬佛里, 鳳溪里, 梧津里, 南江댐 水沒地域 등의 한국 신석기시대 문화 연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유적들이 밀집·분포하고 있다. 정식보고서가 아직 간행되지 않았거나, 학술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적의 자세한 성격이 밝혀지지 않은 유적도 있지만, 영남지역에서 확인된 주요 유적들은 다음과 같다.

嶺南地域의 新石器時代 遺蹟

1. 慶南 巨濟 山達島 패총⁴⁾

2. 慶南 居昌 大也里 유적⁵⁾

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동삼동 패총』(유적발굴조사 설명회 자료집1), 1999. 7. 14

4-1) 鄭澄元, 「山達島貝塚 遺物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文理科大學論文集』 17, 1978.

2) 鄭澄元, 「山達島貝塚 出土 櫛文土器壺」, 『嶺南考古學』 1, 1986.

- | | |
|-------------------------------------|----------------------------------|
| 3. 慶南 居昌 壬佛里 유적 ⁶⁾ | 4. 慶南 金海 農所里 패총 ⁷⁾ |
| 5. 慶南 金海 水佳里 2·3지구 패총 ⁸⁾ | 6. 慶南 泗川 舊坪里 패총 ⁹⁾ |
| 7. 慶南 山淸 江樓里 유적 ¹⁰⁾ | 8. 慶南 山淸 墨谷里 유적 ¹¹⁾ |
| 9. 慶南 山淸 召南里 유적 ¹²⁾ | 10. 慶南 晉州 大坪里 유적 ¹³⁾ |
| 11. 慶南 河東 文岩里 유적 ¹⁴⁾ | 12. 慶南 晉州 上村里 유적 ¹⁵⁾ |
| 13. 慶南 晉州 中村里 유적 ¹⁶⁾ | 14. 慶南 晉州 下玉房 유적 ¹⁷⁾ |
| 15. 慶南 統營 山登 패총 ¹⁸⁾ | 16. 慶南 統營 上老大島 패총 ¹⁹⁾ |

- 5) 임효택 외, 『大也里住居址』Ⅱ, 1989. 12.
- 6-1) 安春培, 「거창 임불리 천덕사지 및 합천 계산리 발굴조사개보」 『嶺南考古學』 3, 1987.
 2) 安春培, 「거창임불리신사유적발굴」 『嶺南考古學』 5, 1988.
 3) 安春培, 「거창임불리유적발굴진전보고」 『한국고고학에 있어서 과학적분석의 검토』(제1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1988
 4) 안춘배, 「임불리 신석기시대 주거지에 대하여 -유구의 중복관계와 출토유물의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23, 1989. 11.
 5) 安春培, 「居昌 壬佛里 先史住居址 調査概報(1)」 『嶺南考古學』 6, 1989. 12.
- 7) 金龍基, 『農所里貝塚發掘調査報告書』, 1965.
- 8) 鄭澄元 외, 『金海水佳里貝塚Ⅰ』, 부산대학교박물관, 1981.
- 9) 鄭永鎬, 「泗川舊坪里貝塚發掘調査概要」 『考古美術』 8-8, 1967.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사천 구평리 유적』-신석기시대 조개더미 발굴보고-(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6책), 1993.
- 10) 安春培, 「山淸 江樓里 先史遺蹟」 『釜山直轄市立博物館年報』 第4輯, 1982. 6. 15 pp. 11~26
- 11-1) 釜山女子大學校 博物館, 『山淸郡 文化遺蹟 精密地表調査 報告書』(釜山女子大學校 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6輯), 1993.
 2) 1997년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발굴
- 12-1) 新羅大學校 加耶文化財研究所, 「산청 소남리유적 1, 2차」 『嶺南考古學』 20, 영남고고학회, 1997. 6. 30, pp. 101~112
 2) 安春培, 「산청 소남리유적(山淸 召南里遺蹟)」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第7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1998. 3. 28
- 13-1) 慶尙南道, 『南江댐水沒地域地表調査報告書』, 1992.
 2) 경상남도·남강유적발굴조사단, 『남강선사유적』, 1998. 7.
- 14) 趙榮濟, 「西部慶南 先史文化 地表調査報告」 『釜山史學』, 1983.
- 15-1) 東義大學校博物館, 「상촌리(上村里) 제1호 지식묘 및 토기 산포지 제1유적」 『嶺南考古學』 20, 영남고고학회, 1997. 6. 30
 2) 東亞大博物館, 「上村里 新石器遺蹟」 『嶺南考古學』 20, 영남고고학회, 1997. 6. 30
 3) 沈奉謹, 「晉州上村里遺蹟出土 新石器時代 甕棺」 『文物研究』제2호, 東아시아文物研究學術財團, 1998. 1. 31
 4) 李東注, 「上村里 新石器遺蹟」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第7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1998. 3. 28
 5) 漢陽大博物館, 『晉州 上村里 2號 支石墓 및 先史遺蹟』(南江댐 水沒地區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第11冊), 1999. 6. 15
- 16) 慶尙南道, 『南江댐水沒地域地表調査報告書』, 1992.
 곽중철 외, 「신석기시대 토기 태토에서 검출된 벼의 plant-opal」 『한국고고학보』 32, 한국고고학회, 1995.
- 17) 慶尙南道, 『南江댐水沒地域地表調査報告書』, 1992.

- | | |
|---------------------------------|------------------------------------|
| 17. 慶南 統營 煙臺島 패총 ²⁰⁾ | 18. 慶南 統營 欲知島 패총 ²¹⁾ |
| 19. 慶南 河東 牧島 패총 ²²⁾ | 20. 慶南 陝川 鳳溪里 유적 ²³⁾ |
| 21. 慶北 慶州 下西里 유적 ²⁴⁾ | 22. 慶北 慶州 隍城洞 유적 ²⁵⁾ |
| 23. 慶北 金陵 松竹里 유적 ²⁶⁾ | 24. 慶北 淸道 梧津里 岩蔭 유적 ²⁷⁾ |
| 25. 釜山 多大浦 패총 ²⁸⁾ | 26. 釜山 大項 패총 ²⁹⁾ |
| 27. 釜山 東三洞 패총 ³⁰⁾ | 28. 釜山 凡方 패총 ³¹⁾ |

- 18) 金東鎬·朴九秉, 『山登貝塚』, 釜山水産大學博物館, 1989. 2. 25
- 19-1) 손보기, 『상노대도의 선사시대 살림』, 수서원, 1982.
- 2) 金東鎬, 『上老大島』,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 3) 金東鎬, 『上老大島의 先史文化研究 序說』, 『大學院 論文集』Ⅷ,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4, pp. 333~387
- 4) 신숙정, 『상노대도 조개더미유적의 토기연구』, 『白山學報』 6, 1989.
- 20-1) 權相烈, 『경남 통영군 연곡리 패총 발굴조사 개요』, 『박물관신문』 211호, 1989.
- 2) 任鶴鐘, 『煙臺島貝塚發掘調査』, 『가야』 3, 가야문화사, 1989
- 3) 韓永熙·任鶴鐘, 『煙台島 조개더미 斷崖部Ⅱ』, 『韓國考古學報』 26, 1991
- 4) 韓永熙·任鶴鐘, 『煙臺島 I』, 국립진주박물관, 1993
- 21) 국립진주박물관, 『欲知島』, 1989.
- 22-1) 張明洙, 『蟾津江下流의 貝塚文化』, 『古文化』 34, 1989.
- 2) 金良美, 『牧島貝塚』, 국립진주박물관, 1999. 5. 31
- 23-1) 沈奉謹, 『함천 봉계리 출토 선사유적 신례』, 『三佛金元龍教授停年紀念論叢』 I, 1987.
- 2) 沈奉謹, 『陝川 鳳溪里 先史遺蹟 調査概報』, 『考古歷史學志』 4, 동아대학교박물관, 1988.
- 3) 沈奉謹, 『陝川鳳溪里遺蹟』, 동아대학교박물관, 1989.
- 24) 洪銀根, 『慶州市 陽南洞 下西里 新石器時代遺蹟』, 『國立慶州博物館年報』, 1996.
- 25) 金賢峻, 『慶州市 皇城洞267遺蹟 發掘調査概報』, 『新羅考古學의 諸問題』, 한국고고학회, 1996.
- 26-1) 曹元鉉, 『金陵 松竹里 遺蹟 發掘調査』, 『韓社會의 考古學』(제1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1993
- 2) 계명대박물관, 『金陵松竹里遺蹟特別展圖錄』, 1994
- 3) 계명대박물관, 『금릉 송죽리 선사유적발굴조사 계획』(1992. 6. 27 조사위원회 자료)
- 27-1) 鄭澄元, 『청도 오진리유적 출토 즐문토기』, 『제2회 조선연구 환태평양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4.
- 2) 鄭澄元 外, 『淸道梧津里岩蔭遺蹟』, 부산대학교박물관, 1994.
- 28-1) 大曲美太郎, 『慶南多大浦にて貝塚發見』, 『トルメン』 3-6, 1935.
- 2) 有光教一, 『東萊多大浦貝塚』, 『朝鮮樺目土器研究』(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第3冊), 1962.
- 3) 金龍基, 『多大浦貝塚發掘調査報告』, 『釜山史學』 2, 1971.
- 29) 채규돈·김원경, 『大項貝塚』, 『加德島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釜山女子大學 博物館, pp. 5~17, 32~38
- 30-1) 及川民次郎, 『南朝鮮牧ノ島東三洞貝塚』, 『考古學』 4-5, 1933
- 2) 橫山將三郎, 『釜山絶影島東三洞貝塚報告』, 『史前學雜誌』 5-4, 1933
- 3) L.L.Sample, 『Tongsamdong : A Contribution to Korea Neolithic Culture History』, 『Arctic Anthropology』 XI-2, 1974.
- 4) 鄭永和, 『東三洞 地表採集 石器』, 『嶺南考古學』 2, 1986. 10.
- 5) 이기길·황성욱, 『동삼동 유적에서 나온 신석기시대 덧문지름무늬토기의 연구 I』, 『古文化』 34, 1989.
- 31-1) 河仁秀 外, 『凡方貝塚』, 부산시립박물관, 1993
- 2) 河仁秀, 『凡方貝塚 發掘調査 成果』, 『第7回 釜山-九州 考古學共同研究會 發表論文集』, 1993.

- | | |
|------------------|--------------------|
| 29. 釜山 北亭 陪塚32) | 30. 釜山 新岩里 陪塚33) |
| 31. 釜山 岩南洞 陪塚34) | 32. 釜山 瀛仙洞 陪塚35) |
| 33. 釜山 外港浦 陪塚36) | 34. 釜山 栗里 岩蔭 유적37) |
| 35. 釜山 朝島 陪塚38) | 36. 蔚山 城岩洞 陪塚39) |
| 37. 蔚山 牛峰里 陪塚40) | |

4. 調査・研究成果

위의 유적들 가운데서 동삼동 패총의 시굴과 발굴, 신암리 유적, 수가리 패총, 울리 암음 유적, 상노대도 패총, 임블리 유적, 옥지도 패총, 연대도 패총, 산등 패총, 봉계리 유적, 금릉 송죽리 유적, 범방 패총, 오진리 암음 유적, 남강댐 수몰지역, 우봉리 유적, 목도 패총 등의 발굴에서 이루어진 층위확인 조사를 통한 자료의 축적은 동삼동 패총의 층위에 따른 편년, 영선동식 토기양식의 설정과 편년, 용기문토기의 기원과 편년, 각 지역별 변천양상을 구명하는 토대가 되었다.

-
- 3) 河仁秀, 『凡方貝塚』Ⅱ, 부산시립박물관, 1996
- 32) 釜山水産大學博物館, 『北亭貝塚』, 1993.
- 33-1) 齋藤 忠, 「慶尙南道蔚山郡西生面出土の「櫛目文様」土器片」 『考古學雜誌』 25-6, 1935., pp. 382~384.
- 2) 任孝宰, 「東萊 新岩里 打製石器 一括」 『考古美術』 8-1, 1967, pp. 6~10.
- 3) 任孝宰, 「慶南 東萊郡 西生面 出土 隆起文土器」 『考古學』 1, 1968., pp. 115~125.
- 4) 金鐘徹, 「梁山郡 西生面 新岩里 先史遺蹟」 『博物館新聞』 45호 제2면, 1974.
- 5) 金鐘徹, 「梁山郡 西生面 新岩里 遺蹟」 『韓國考古學年報』 2, 1974, pp. 17~20.
- 6) 國立中央博物館, 『新岩里Ⅰ』, 1988.
- 7) 國立中央博物館, 『新岩里Ⅱ』, 1989.
- 6) 申鍾煥, 「蔚山 新岩里遺蹟」 『嶺南考古學』 6, 1989. 12.
- 34) 有光教一, 「釜山 岩南洞貝塚」 『朝鮮學報』 36.
- 35-1) 橫山將三郎, 「釜山府絶影島貝塚調査報告」 『史前學雜誌』 5-4, 1933년에 발견.
- 2) 有光教一, 「朝鮮 釜山府 瀛仙町の貝塚に就いて」 『人類學雜誌』 51-2, 1936.
- 36) 崔규돈·김원경, 「大項貝塚」 『가덕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부산여자대학 박물관, pp. 5~17, 32~38
- 37) 金廷鶴·鄭澄元, 『金谷洞 栗里貝塚 -岩蔭住居遺蹟-』, 부산대학교 박물관, 1980. 7. 20
- 38-1) 林墩, 「朝島貝塚出土 遺物 小考 -櫛文土器를 中心으로」 『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13, 한국해양대학, 1978.
- 2) 韓炳三 外, 『朝島貝塚』, 국립박물관, 1976. 12. 30.
- 39) 新羅大學校博物館, 「울산 성암동패총」 보도자료, 1999.
- 40-1) 沈奉謹, 「蔚山 牛峰里遺蹟 出土 新石器時代 磨製石器」 『嶺南考古學』 18, 1996.
- 2) 沈奉謹 外, 『蔚山牛峰里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1997. 10. 20.
- 3) 沈奉謹, 「蔚山 牛峰里式土器 段階設定 試案」 『古文化』 5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7.

東三洞 貝塚의 層位와 編年

신석기시대 유적이 밀집 분포하는 낙동강유역 일대 및 그 인접해안지대의 신석기시대 토기는 토기군 상호간에 특징을 서로 달리하는 종류가 각 분기의 주체를 이루는 지역적 특징이 있다. 원시무문토기 용기문토기 지두문토기 압인문토기 태선어골문토기 이중구연토기 등이 각각 신석기시대 이 지역 각 분기의 주체가 되고 있다. 동삼동 패총은 1930년 橫山將三郎과 及川民次郎 시굴, 1963~1964년 A. Mohr와 L.L. Sample에 의한 시굴이 있었고, 1969~1971년 국립중앙박물관탐에 의한 대규모 학술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Sample이 2개의 시굴 트랜치를 설치 층서적 발굴을 실시하여 동삼동 신석기시대 문화층을 5기로 구분⁴¹⁾하여 朝島期(원시무문토기와 용기문토기) → 牧島期(지두문토기) → 釜山期(압인문토기) → 頭島期(태선어골문토기) → 影島期(이중구연토기)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동삼동 패총의 편년이 한국 신석기시대 편년의 골격이 되어왔다. 동삼동유적은 1979. 7. 26 사적 제266호로 지정·보호되어 왔는데, 1999. 5. 17부터 8. 14까지(90일 예정)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이 영도구청에서 시행하는 동삼동패총 주변정화사업과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에 따른 사전 매장문화재 수습발굴조사를 실시하여, 1~7층으로 나누고 4층과 5층사이에 끼어 있는 두 개의 간층을 4a층 4b층으로 구분하여 조기(7층·6층) 중기(5층·4b층·4a층) 후기(4층·3층) 만기(2층)으로 구분하였다.⁴²⁾ 1999년의 발굴성과는 보다 세분된 층위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층에서 출토된 자료에 의한 새로운 편년성과를 제공하게 되어 앞으로 영남지방의 신석기문화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보인다.(참조 : 1. 東三洞貝塚 淨化地域 層位別 出土遺物 現況)

瀛仙洞 貝塚과 瀛仙洞式土器

영선동식토기는 1930년대에 조사된 영선동 패총 출토 자료를 바탕으로 형식론적인 바탕에서 영선동 패총에서 출토된 압인문토기를 통칭하는 형식명으로, 남해안지역 즐문토기 전기의 표식적인 토기로 인식되어왔는데, 최근에 새롭게 영선동식 토기를 남부지방 전기즐문토기를 대표하는 토기군으로 양식론의 입장에서 영선동식 토기를 자돌문토기·압인문토기·압날문토기·조압문토기·세침선문토기·세단선문토기·구순각목토기 7종으로 하고 그 분포 범위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 그리고 영남내륙까지이고 일본의 대마도 누가스유적 부부석유적 구주의 도도로끼(轟)패총에서도 출토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⁴³⁾(참조 : 4. 영선동식토기 분포도 / 6. 瀛仙洞式土器 編年表)

41) L.L. Sample, "Tongsamdong", Arctic Antropology 11-2, 1974.

4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동삼동패총』(유적발굴조사 설명회 자료집1), 1999. 7. 14.

43) 河仁秀, 「瀛仙洞式土器 小論」 『嶺南考古學』 21, 1997.

新岩里 遺蹟과 隆起文土器

신암리유적은 1935년에 齋藤 忠에 의해서 즐문토기 유적으로 보고되었으며, 1966년 임효재에 의한 시굴에서 즐문토기편의 수습과 함께 새로이 덧무늬토기 문화층의 확인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1974년 8월에 덧무늬토기 유적인 1지구와 즐문토기 유적인 2지구를 선정 발굴했다.

제1지구는 4개의 층위로 구분되었으나, 제1층에서 제3층까지는 각기 색깔을 달리하는 자연층위이고 실질적으로 유물이 포함된 층위는 제3층의 바닥과 제4층위 이들은 단일문화층으로 파악되었다.

제2지구는 황갈색 사질토로된 생토층 위에 4개의 퇴적층이 거의 수평으로 퇴적되어 있었는데, 제4층이 유물포함층으로 유물이 두텁게 쌓여서 발견되었다.

이상균은 용기문토기의 형식명을 신암리식토기(新岩里式土器)로 설정하고⁴⁴⁾, 신암리식 토기와 영선동식 토기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통하여 용기문토기의 기원과 한일교류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참조 : 2. 新岩里式 土器의 分布圖 / 3. 隆起文土器의 器形的 變化와 段階設定)

水佳里 貝塚의 編年

수가리 패층은 1978부터 1979년까지 부산대 박물관팀에 의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제3구 패층을 6개의 자연층위로 구분되고 3개의 문화기로 구분하여 수가리 1기(자연층위 6·5층)에서는 태선어골문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수가리 2기(4·3층)에서는 태선어골문토기가 감소되면서 無文樣土器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수가리 3기(2·1층)에서는 無文樣土器의 양이 더욱 증가되면서, 이중구연토기가 출현하고, 문양있는 토기의 경우 문양이 퇴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참조 : 7. 南部地方 幾何文土器(遺蹟) 編年表)

栗里 岩蔭 遺蹟

부산 금곡동 울리 암음 유적은 1972년부터 1973년까지 부산대박물관팀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울리 암음 유적의 이중구연토기가 즐문토기 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울리식토기로 부르게 되었다.(참조 : 7. 南部地方 幾何文土器(遺蹟) 編年表)

44) 李相均은 용기문토기의 형식명을 新岩里式土器로 설정 함.(李相均, 「隆起文(新岩里式)토기의 諸問題」 『湖南考古學報』 3, 1996., pp.1~28.

壬佛里 櫛文土器의 相對編年

거창 임블리 유적은 세석기(細石器)⁴⁵⁾와 신석기·청동기·통일신라시대의 절터(寺址)·고려시대의 절터 등 여러 시기의 유적이 밀집된 곳이다. 임블리 즐문토기는 쓰레기의 퇴적층 위가 아닌 주거지의 중복관계를 확인하여, 즐문토기 주거지의 상대편년이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임블리 즐문토기의 선후관계를 구명(究明)하였다.⁴⁶⁾(참조: 8. 壬佛里 出土 櫛文土器의 相對編年 / 9. 壬佛里 出土 櫛文土器의 相對編年表에 따른 一覽表)

凡方 貝塚의 土器 型式

부산직할시립박물관팀이 조사한 범방 패총은 분묘 1기(토광묘), 원형집석시설 6기(조리시설), 노지 2기로 유구는 모두 9기가 조사되었다.

隆起文土器 : 범방 패총에서 출토된 용기문토기의 문양대(文樣帶)는 기본적으로 용기선과 용기대문으로 구성되지만, 여기에 세침선문이 복합되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양 형태와 문양간의 복합관계를 통해 볼 때 범방 출토 용기문토기의 문양대는 문양대가 용기선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 용기선문과 세침선문이 복합되어 문양대를 구성한 형태, 문양대가 용기대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 용기대문과 세침선문이 복합되어 문양대를 구성한 형태, 용기대문과 용기선문이 복합되어 문양대를 구성한 형태, 용기대문 용기선문 세침선문이 복합되어 문양대를 구성한 형태(a~f형) 등인데, 용기문토기의 문양이 여러 속성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러한 속성들이 어떠한 기획 의도를 가지면서 구성되고 배치되는가 하는 원칙을 중요시 한다면, 4형식으로 나누어진다.

I 식은 구연 아래에 일정한 여백을 두고 용기선 또는 용기대문으로 횡대를 구획한 후 그 하부에 문양대를 시문한 형식이며 범방 I 기층의 대부분 용기문토기가 여기에 포함된다.

II 식은 구연 아래를 용기선 또는 용기대문으로 구획하고 횡대 상·하에 문양대를 시문한 형식이 표식적이거나, 횡대 구획없이 구연과 그 하부에 다른 형태의 문양을 배치하므로써 문양대가 분리되는 효과를 내는 형식도 여기에 포함 시킬수 있다.

III 식은 구연 아래의 횡대 구획이 없고 구연 바로 아래부터 문양대가 시문되는 형식이며 범방 II 기층의 대부분 용기문토기가 여기에 속한다. 위와 같이 분류된 용기문토기는 횡대 구획의 소멸과 문양대의 확대라는 형식학적 변화로 보아 I 식→II 식(IIA→II)→III 식으로의 변천이 상정된다.

45) 壬佛里 出土 細石器에 대해 加藤晋平(千葉大學)교수와 安蒜政雄(明治大學)교수는 후꾸이(福井) 洞窟 유물과 같은 것으로, 西井幸雄(埼玉縣埋藏文化財)씨는 센부꾸(泉福寺) 岩蔭遺構 유물과 같은 것으로, 木崎康弘(熊本文化財收藏庫)씨는 도게시다 유물과 같은 것으로 보는데, 筆者가 본 遺物實測圖에 나타난 형태로는 임블리 세석기는 도게시다 유물과 통한다.

46) 安春培, 「居昌 壬佛里 先史住居址 調査概報(1)」, 『嶺南考古學』 6, 1989. 12.

IV식은 III식 용기문토기 다음에 용기문토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일군(一群)의 토기가 존재하는데 이 토기군을 용기문토기 IV식으로 설정하며 이들은 한반도 동북지방 자돌문토기 문화의 영향과 자체 토기 문화의 변화 결과 전단계의 용기문토기와는 시문수법과 문양 형태에서 변질된 특징을 보여주는 일군의 토기를 말한다. IV식 용기문토기는 구연 아래에 구획대가 없고 문양대가 구연 바로 아래부터 배치되고 시문되는 점은 III식과 동일하나, 저부의 원저화 및 d형 구순의 증가, 각목의 성행 등에 있어 용기문토기 III식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細沈線文土器 : 중기의 태선침선문계 토기와 구분하는 것이며, 즐문토기 조·전기에 성행하는 형식으로 I·II기층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신석기시대 조기로 편년할 수 있다. 지두문토기와 마찬가지로 조기 즐문토기의 한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범방 I·II기층 출토품을 표식으로 하는 세침선문토기는 자돌·압인문토기가 주체를 이루는 즐문토기 전기에 이르러서 문양대의 형태나 시문수법 등이 변형되어 계속 존재하게 된다.

범방 패층에서는 I·II기층에서 31점, IV·V·VI기층에서 60점의 지두문토기가 출토되었는데 IV·V·VI기층에서 출토된 지두문토기는 I·II기층에서 이동된 것이 분명하여 지두문토기의 대부분은 I·II기층과 관련이 있다.

指頭文土器 : 모두 단독문이며 용기문이나 세침선문 등과는 복합되지 않고 있고, 신암리나 동삼동, 영선동 패층 출토품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지두문토기 중에는 구순에 각목이 시문되는 경우가 있다.

豆粒文土器 : 구연 아래에 직경 0.5~1센티 정도의 둥근 점토덩이를 연속적으로 붙여 문양효과를 낸 토기를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문양 형태가 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두립문토기로 부르고 있다. 두립문토기는 범방패층 외에 동삼동과 육지도 패층에서 수점만 출토되고 있는 정도로 유적과 출토량이 적다. 두립문토기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초기 조오몽토기(繩文土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두립의 시문방법, 기형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연계 시키는 데는 무리(無理)이다⁴⁷⁾. 이 토기는 점토를 기면에 부착하여 용기효과를 내는 점에서는 용기문토기와 동일하고, 범방이나 동삼동 패층 출토품중에 용기문과 두립문이 복합된 예가 있고 범방 I·II기층에서 출토되고 있는 점에서 신석기시대 조기 즐문토기의 한 형식으로 파악한다.⁴⁸⁾

丹塗磨研土器 : 일반적으로 무문양의 내외면에 단을 발라 마연하는 것이 보통이나 용기문 또는 세침선문토기에 부분적으로 단(丹)을 발라 채색 효과를 내기도 하여, 단을 발라 채색하는 단도마연토기는 채색토기로 구분할 수도 있다. 육안으로 볼 때 용기문토기 단계의 단도마연토기는 단의 두께가 얇고, 중기의 태선침선문계 것은 단이 두껍다. 범방유적에서의 층위적인 출토 상황으로 볼 때 이 토기는 조기에 출현하여 중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47) 韓永熙, 『新石器時代 地域的 比較』 『韓國史論』 12, 1984.

48) 河仁秀 外, 『凡方貝塚』 I, 1993., pp. 194.

口唇刻目文土器 : 용기문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신석기시대 초기 토기 중 구순각목토기는 처음에는 그다지 성행하지 않았으나, 뒤로 갈수록 증가 유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 단계인 전기의 즐문토기에 구순각목이 증가한다. 다른 형식과 복합관계는 문양이 없는 것 72% 문양이 있는 것 28%로 집계되며,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전기에 걸친다. 그리고 각목수법과 형태에 따라 5형식으로 나눌수 있는데, 시문구로 구순 중앙을 수직으로 누르거나 그어서 각목한 형식(I 식), 이를 다시 각목 형태에 따라 평행한 것(IA식)과 X자형으로 된 것(I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구순 중앙을 자들기법으로 각목해서 각목 형태가 점열을 이룬 것(II 식), 구순 안쪽에 경사지게 각목한 형식(III식), 구순 안쪽에 경사지게 각목하는 과정에서 압력에 의해 구순 바깥쪽이 굴곡되어, 구순 평면이 파상형을 이룬 것(IV식) 가운데 시문구로 각목한 것(IVA식)과 지두로 구순 안쪽을 눌러 각목 효과를 낸 것(IVB)으로 나누어 지고, 구순 안팎을 이중각목한 형식(V 식)이 있다. 구순각목토기는 남해안의 여러 패총과 군산 가도 패총, 오산리유적 등에서도 출토되었는데, 범방패총의 경우 신석기시대 초기에 출현하였으나, 성행하는 것은 신석기시대 전기에 자들·압인문과 결합되면서 부티이고 중기에 접어들면서 사라진다.

刺突·押引文土器(瀛仙洞式 土器) : 자들 또는 압인기법으로 문양대를 구성한 자들·압인토기를 총칭해서 영선동식토기로 부르는데, 용기문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범방패총 I·II기층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자들문토기는 끝이 둥글거나 뾰족한 시문구로 수직 또는 비스듬히 찢러 문양효과를 낸 것으로, 시문기법과 문양 형태에 따라 6형식으로 나눌수 있다. 끝이 둥근 시문구로 찢러 평행점열문을 시문한 것(I 식), 시문기법은 I 식과 같지만 문양형태가 山形文을 이루는 것(II 식), 시문기법은 I 식과 같지만 문양형태가 짧은 자들횡주어골문을 이루어 압인횡주어골문과 형태는 비슷하나 시문기법과 문양의 크기가 다른 것(III식), 시문구를 비스듬히 눌러 연속자들하여 점열문 효과를 낸 것(IV식), 반죽관(半竹管) 형태의 시문구로 연속적으로 눌러 시문한 것(V 식), I 식의 점열문에 세침선문이 복합된 것(VI식) 등이다.

압인문토기는 끝이 뾰족한 시문구로 먼저 기면을 찢른 뒤 당겨 그어 문양을 넣은 토기로 영선동식토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압인문토기는 순수 압인기법으로 문양대를 구성하는 것과 세침선과 결합되어 복합문 형태를 이루는 것이 있다.

범방패총 5·6층의 자들·압인문토기는 시문기법과 문양대의 특징에 따라 3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들 점열문으로 문양대를 구성하는 토기군(산형문IIA식과 조압문(爪押文) 토기 포함)(I 군), 자들 또는 압인기법에 의한 소형횡주어골문을 주요 문양대로 시문한 토기군(II군), II군에서 성행했던 압인상의 횡주어골문이 간략화되어 지그재그형태로 변하거나 문양단위가 커지고, 삼각집선문 내지 방형집선문토기가 유행하면서 압인기법이 쇠퇴하는 시기의 것(III군)으로 구분된다.

太線沈線文土器 : 수가리 I기층의 표식적인 토기인 동시에 남해안 즐문토기를 대표하는 형식(약칭 沈線文土器)으로 범방패층에서는 단사집선문과 태선침선문토기로 나누어진다. 이들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단사집선문토기는 다치구 또는 단치구를 사용하여 압인기법으로 단사집선문을 단독문으로 이용한 것과 황주어골문, 사격자문, 파상문, 삼각집선문 등과 결합된 복합문이 있는데, 단사집선문토기는 침선문을 하부 문양대로 시문한다. 태선침선문토기는 단독문인 사격자문과 황주어골문을 시문하며, 복합문으로 된 태선침선문토기는 문양대가 구연부와 동체부로 나누어지며, 구연부 문양대는 삼각집선문과 수지문(樹枝文), 동체부 문양대는 모두 황주어골문을 시문했다. 태선침선문토기의 중심시기는 신석기 중기 전엽에서 중엽으로 보고 있다.

退化沈線文土器 : 퇴화침선문토기는 수가리 II기층 출토 토기를 표식으로 한다. 태선침선문토기와의 시문수법, 문양구성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일군(一群)의 토기로, 세침선 기법에 의한 스침무늬(擦過文) 또는 가볍게 누른 시문이고, 문양대는 전체적으로 조잡하고 단순한 편이다. 문양형태는 사격자문, 능형문, 단사선문, 평행문, 집선문, 어골문 등이 있고, 문양의 구성은 구연 아래에 일정한 공간을 두고 시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문범위도 그릇의 상부에 그치고 모두 단독문으로 시문되고 복합문은 전혀 없다. 이러한 문양구성의 단순성과 조잡성, 세격자문의 증가, 외반구연토기의 등장, 복합문의 소멸 등은 중기의 태선침선문계토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이다.

短斜線文·二重口緣土器 : 신석기시대 만기 토기인 단사선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는 울리식(栗里式) 토기로도 부른다. 범방패층에서는 제2층 순패층에서만 출토된다. 단사선문토기는 구연 아래에 일정한 여백을 두고, 1열 내지 2열의 단사선을 가로로 시문한 형태가 주류이고, 일부는 후기 즐문토기에서 퇴화한 능형문과 결합되기도 한다. 이중구연토기는 단면세장 방향의 얇은 점토띠를 구연 바로 아래에 덧붙인 형태이고 대부분 문양이 없는 것들이다. 이중구연 아래에 퇴화침선문을 세로로 비스듬히 시문한 것, 이중구연 바깥면에 자돌기법으로 점열문을 장식한 것 등이 있다. 범방패층의 이중구연토기와 단사선문토기는 시문기법과 문양대의 특징으로 볼 때 수가리 III기층과 거의 평행하는 것으로 본다.(참조 : 6. 瀛仙洞式土器 編年表)

梧津里 岩蔭 遺蹟과 梧津里式土器

청도 운문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부산대학교 박물관팀에 의해서 조사된 유적이다.

梧津里式土器는 오진리 암음 유적 IV층에서 출토된 토기의 하나로 정형화된 무늬에 비해서 무늬라고 할 수 없는 극히 조잡한 무늬가 시문된 토기로, 정형성 없이 무질서하게 시문된 문양의 원시성, 문양은 토기 전면에서 시문하나, 동체의 아래 쪽 부분은 무늬가 지워진

부분도 있는 토기로, 확인된 기종은 모두 발(鉢)이고, 구경은 대체로 중·대형이고 동체의 윗쪽 부분은 거의 직립하여 구연부에 이르러 약간 내경하는 용형으로, 토기의 입지름이 줄어들고 키가 큰 포탄형이며, 저부는 대부분 원저인데, 침저를 의도한 것도 있다. 태토는 점토성·사질성 두가지이며, 성형은 점토띠를 짧게 대나무 마디와 같이 이어 붙였다. 기벽은 대체로 1센티 내외로 두텁다. 구순에 각목이 시문된 것과 구연부 바로 아래에 양쪽에서 마주 뚫은 원공 1개가 있는 것이 많다. 정면(整面)은 주로 물손질 기법을 썼으며, 내면은 목판 긁기 기법을 쓴 것도 있다. 오진리Ⅳ층 토기는 3유형 6형식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토기는 문양이 극히 원시적이며 조잡하여 조제토기(粗製土器)⁴⁹⁾로 불리기도 했었다. 오진리토기는 층위상으로 용기문토기가 출토된 층보다 아래층으로 순수 용기문토기보다 이른 단계의 토기 형식이고, 세석기와 공반되지 않으므로, 세석기와 공반되는 토기보다는 후행하는 토기 형식이라고 생각된다.(참조 : 5. 梧津里 櫛文土器 編年表)

南江댐 水沒地區의 新石器時代 遺構와 遺物

남강댐 수몰지구에서는 상당수의 주거지와 많은 즐문토기편이 채집되었다. 남강댐수몰지구에 대한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전에 이 지역의 즐문토기문화가 확인된 것은 산청군 단성면 강루리유적⁵⁰⁾, 목곡리 상촌유적, 금서면 매촌유적⁵¹⁾ 등이며, 남강댐 수몰지구의 조사과정에서 산청군 단성면 목곡리 하촌유적⁵²⁾, 소남리유적⁵³⁾, 진주시 대평면 상촌리유적⁵⁴⁾, 대평리 하옥방유적⁵⁵⁾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서 유구가 확인된 것은 동아대학교 박물관과

49) 鄭澄元은 이 토기를 「淸道 梧津里 遺蹟 出土 櫛文土器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와 關聯하여-」 『第2回 韓國研究環太平洋國際會議 -考古學 部門 發表要旨』, 1994. 7. 에서 退化指頭土器의 일종으로 보았음. / 釜山大 博物館, 『淸道 梧津里 岩蔭 遺蹟』 pp. 227 尾註 8

50) 安春培, 「山淸 江樓里 先史遺蹟」 『釜山直轄市立博物館年報』 第4輯, 1982. 6. 15 pp. 11~26

51) 釜山女子大學校 博物館, 『山淸郡 文化遺蹟 精密地表調査 報告書』(釜山女子大學校 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6輯), 1993.

52) 1997년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발굴.

53) 1995~1998년,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발굴, 보고서 작성중.

54-1) • 東亞大博物館, 「上村里 新石器遺蹟」 『嶺南考古學』 20, 영남고고학회, 1997. 6. 30

• 沈奉謹, 「淸州上村里遺蹟出土 新石器時代 甕棺」 『文物研究』제2호, 東아시아文物研究學術財團, 1998. 1. 31

• 李東注, 「上村里 新石器遺蹟」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第7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1998. 3. 28

2) 東義大學校博物館, 「상촌리(上村里) 제1호 지석묘 및 토기 산포지 제1유적」 『嶺南考古學』 20, 영남고고학회, 1997. 6. 30

3) 한양대학교 박물관, 「진주 상촌리 2호 지석묘 및 선사유적」(남강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11집), 1999

55-1) 慶尙南道, 『南江댐水沒地域地表調査報告書』, 1992.

2) 경상남도·남강유적발굴조사단, 『남강선사유적』, 1998. 7.

동의대학교 박물관이 발굴한 상촌리유적과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소남리 유적이다. 신라대학교에서 발굴한 소남리유적은 즐문토기문화층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적지정을 추진 발굴이 중단되었고, 동의대학교 박물관의 조사내용은 아직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 동아대학교에서 발굴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진주시 대평면 상촌리 534-3번지 외 10필지에서 이루어진 1997년도의 1차조사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 15기, 타원형 적석유구, 신석기시대 후반 제사유구 1기, 바닥면에서 봉계리식 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확인되어, 신석기시대 후기로 추정되는 환호, 노지로 생각되는 석상형(石箱型) 유구 등이 확인되었고, 토기는 단사집선문(상부)에 태선어골문이 시문된 전면시문 즐문토기와 평행자돌문(상부) 아래에 어골문이 시문된 것, 삼각집선문이 시문된 것, 단도마 연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기형은 직립구연과 첨저형이 대부분이다. 구순각목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압인문토기(영선동식) 이후 단계로 생각하여, 단사집선문과 전면시문을 특징으로 하는 신석기문화 중기단계로 추정하고 있다. 구연부가 외반하고 문양대가 구연부에서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시문되는 봉계리식 토기편과 격자문이 시문된 이중구연토기편도 출토되어, 신석기시대 중기단계에서 후기단계에 걸치는 시기폭을 갖는 유적이다. 남부지방 신석기시대 전면시문 침선문토기 단계의 주거유적으로서는 처음이고, 거의 완형에 가까운 삼각집선문토기의 내부에서 인골로 추정되는 골편이 나왔다. 신석기시대의 예로서는 처음인 옹관이다.

상촌리 신석기시대 옹관은 모두 2기로 침저심발형인데, 1호 옹관은 직립하는 구연부에 구순은 수평을 이루며, 동부 중위에서 갑자기 격어져서 첨저를 이룬 것으로 남부지방의 돌산 송도나 영도 영선동유적 등 신석기시대 용기문토기~침선문토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주 출토되는 기형으로, 성형은 폭이 넓은 점토대로 권상법을 사용했으며, 기면을 조정된 뒤에 구연부에만 삼각집선문을 상하 어긋나게 일단을 시문하였으며, 표면 중간의 기벽은 패각조 혼문이 남아 있으며, 저부에는 바깥쪽에서 두드려 깨어낸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있는데, 토기편으로 구멍을 가렸다. 태토는 굵은 사립과 장식, 석영, 각섬석 그리고 金雲母가 함유되었는데, 소성도는 양호하며 소성시에 생긴 흑반이 있다. 내부에서 화장한 성인의 인골편이 채집되었다. 높이 34.5센티 구경 39.7센티 1호옹관 바깥쪽에서 뚜껑으로 사용된 토기편으로 생각되는 단사집선문의 구연부편과 부장품으로 추정되는 점판암제의 타제석부가 출토되었다.

2호 옹관은 외반 경사하는 직립구연에 동체는 약간 둥글면서 저부까지 직선상을 띠어 첨저부에 이르는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 형태를 가진 것으로 한강유역의 미사리, 암사동유적과 북한강의 지탑리, 궁산리유적 등 서부지방의 유적에서 자주 출토되는 기형이다. 성형은 폭이 넓은 점토대로 권상법으로 빗었으며 바깥 불임수법이며, 문양은 구연부에서 견부에 이르는 외벽에 2단의 압인된 단사집선문, 다음에 1단의 종주어골문, 그 밑에 6단의 단사집선문을 배치한 뒤 동부(胴部) 부분은 공간으로 남긴 뒤에 저부에 이르러 횡주어골문을 1단 돌리

고 밑바닥을 삼각집선문으로 마감하였다. 내부에서 화장된 인골편이 검출되었다. 높이 47.5센티 구경42센티 2호옹관에서 뚜껑으로 사용된 단사집선문과 너문토기 구연부편과 소문의 저부편 그리고 부장품으로 생각되는 점판암제의 타제석창이 출토되었다.(참조 : 4. 瀛仙洞式土器 分布圖)

이 외에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진주시 대평면 상촌리 506-2번지의 12필지를 조사하여 시굴핏트와 트렌치 조사 및 1호·9호주거지에서 사격자문·능형집선문·단사점열문 등 즐문토기편이 출토된 것을 보고하였는데, 관련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석기시대 후기의 토기편들이다.

牛峰里 遺蹟과 牛峰里式土器

동아대학교 박물관팀이 발굴하였다. 울산광역시 온산면 우봉리 11번지, 온산공업단지 끝부분의 해안면에 돌출한 구릉의 남서 사면에 위치하며, 층위는 표토층(1층), 흑색토층(2층), 유물포함층(3층-두께 50센티정도), 적갈색점토층(4층), 황갈색점토층(5층), 생토층·암갈색점토층·자갈층(6층), 명갈색점토층(7층)으로 구분되며,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짙은 흑색토양이 표토층 아래에서 유적 주변지역에 넓게 분포한다. 흑색토양은 생토면 위에 퇴적되어 있었으나 해발10미터 정도의 조사구역에서는 흑색토층과 생토면 사이에 암갈색 점토층이 형성되어 유물들은 모두 이층에서 출토되었다. 흑색토양은 한국 남부지방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중국 요동반도의 경우 대략 7,500 B.P.인 이 층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많이 발견되어 이 토층을 경계로 신석기유적의 연대를 가늠하는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토기는 구연부편, 동체부편, 저부편으로, 태토는 굵은 석영과 장식편이 혼입되었고, 가는 운모편이나 활석편들도 혼화재로 포함되었는데, 구연형태는 내만, 직립, 외반의 갖가지이고, 구순부 형태는 끝이 뾰족한 첨두형, 둥근 여의주형, 약간 편평한 수평형 등이며, 기형은 좁은 평저부를 가진 심발형, 발형, 말각평저형(원저에 가까운 평저) 등이며, 저부에 활엽수의 엽맥문양이 찍힌 것이 있다. 기면은 외부는 누루기와 물손질, 내부는 조흔문(條痕文) 흔적이 보인다. 성형은 윤적법과 권상법이 사용되었으며, 문양은 구연부에서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시문하여, 평행융기선문이나 융기대문을 기본으로 하고, 그 사이에 평행집선문이나 삼각형의 문양이 시문된 것들이 있고, 침선으로 격자문이나 번개무늬가 부가 시문된 것들, 구순부에서 곧 바로 수직으로 평행집선문양을 시문한 것, 우봉리에서만 출토되는 불가사리와 같은 방사상의 형태로 부착된 융기대문, 자돌문과 조흔문을 시문한 것 등이다. 구연부 형태는 동해안의 양양 오산리유적이거나 신암리유적, 범방유적, 돌산 송도, 상노대도유적 등 남해안 패총유적에서 나타나는 융기문토기들과 특징상 비슷하다.

牛峰里式土器는 구순각목이 없고 저부가 좁은 평저형의 융기문토기호를 지칭한다.

牧島 貝塚

국립진주박물관팀에 의해서 조사된 패총으로,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산 33-1번지, 전 283번지, 섬진강 하구의 목도 구릉지 서사면 말단부, 북위 36° 02' 40", 동경 127° 46' 21"에 위치하는 즐문토기시대 패총으로 유적의 층위는 I층 교란층, II층 후기즐문토기층, IIa층 간층(적갈색부식토 -즐문토기 중기층은 없음), III층 전기즐문토기층, IV층 패각층과 재층의 반복층(이층에서는 세분되는 여러 층의 토기가 동일개체로 복원되어 단일문화층임이 확인됨), V층은 유적의 남쪽 경사가 없는 부분에 형성되었다. 서쪽으로는 연속적인 퇴적양상을 보이며, 동쪽에는 혼토패층(混土貝層)이 형성되었다. 유구로는 노지 11기, 주거지 2기, 수혈 2기, 주혈군이 발견되었다. 출토유물은 모두 476점으로 토기 327점⁵⁶⁾, 석기 136점, 골각기 13점이다. 토기의 문양은 용기문(隆起文), 조압문(爪押文), 압형문(押形文), 자들문(刺突文), 침선문(沈線文) 등이다. 유물은 용기문과 침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기가 남해안 즐문토기편년의 전기에 해당한다. 토기의 기형은 발(鉢), 완(盥), 호(壺),瓮(瓮) 등이다.(참조 : 4. 瀛仙洞式土器 分布圖)

5. 新石器時代 土器 研究의 諸問題

영남지방의 신석기시대 문화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한반도 최고의 토기로 인식되어 온 용기문토기의 기원과 편년 및 영선동식 토기의 등장과 확산 등 토기형식의 분류와 양식설정 그리고 편년을 둘러싼 문제들이었고 아직도 그 단계를 크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최근의 연구는 그 시대의 고환경(古環境) 복원을 통한 생활상에 대한 이해나, 국지적(局地的)인 고찰을 벗어나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른 지역과의 교류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괄목할 만 하다.

그런데 필자가 본고를 위해서 살펴 본 논고들로부터 느낀 것은 각자가 각자의 방법론에 의해서 제문제들에 접근하면서, 기존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보다는, 자신의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데 주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과 이에 따른 혼란 그리고 새로운 양식의 설정을 놓고 일어나는 논쟁이다. 전자는 연구자 각자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이나, 후자는 부분적으로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다만 그러한 문제를 보고서의 말미에서 논하기 보다는 논고로 제시됨이 마땅할 것이다.

이제 학문의 세계에도 새로운 경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연구기기가 불충분하고 자료

56) 용기문토기 1점과 I·II층의 후기토기를 제외하면 전부 남해안 즐문토기 편년의 전기에 해당하는 압인문토기군이 편년상 한 획기를 이룬다.

가 부족했던 지난 날의 연구자세에만 매달리고 있기 보다는 PC의 활용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검증과 분석방법을 찾아 새롭게 변모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고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길이라고 하겠다.

1980년대 이후에 고고학적 정보는 그 이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고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정보의 홍수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어, 연구자들은 각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에 근접하는 자료만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거리가 있는 자료를 묵살할 구실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연구성과의 적정성에 대한 간편한 검증방법을 개발하는 것과 정보의 독점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고고학적인 연구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연구자 개개인이 똑 같은 주제로 같은 정보를 이용할 때에도 엄청난 시간과 정력을 쏟아서 각자가 몇번이든 반복되는 작업을 해야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각자의 데이터뱅크에 정보를 입력하는데 기우려 온 도로(徒勞)를 줄이고, 공동의 데이터뱅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연구환경을 가꾸어 나가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먼저 이루어져야할 일은 보고서와 연구논문의 발간과 배포를 인쇄자료(印刷物) 중심에서 전자자료(디스켓 등)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고고학적 정보는 이제까지 유가교환(有價交換)이 아닌 무가교환(無價交換)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학회나 협회가 인터넷상의 전용공간만 마련한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아울러 고고학적인 제반 작업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보장하고, 과학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할 때 한국고고학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연구성과는 최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에 동학(同學)으로서의 의무와 수혜자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가진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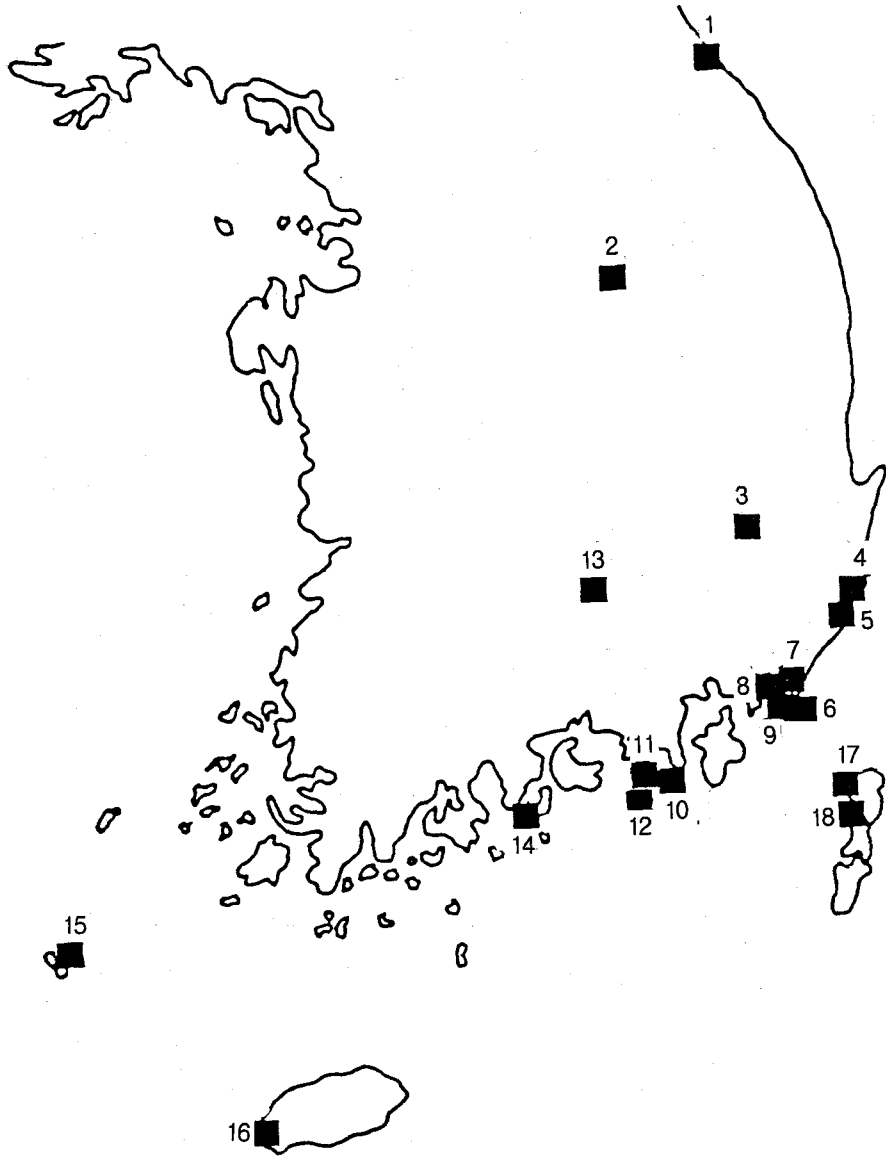
6. 맺음 말

어떠한 경우에도 고고학적 연구는 성공적인 발굴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사상누각(砂上樓閣)일뿐이다. 성공적인 발굴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발굴 가운데 그러한 조건을 갖춘 발굴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고학적 정보는 혼자서 캐내는 것이 아니며,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 바닷가 한 모퉁이에서 이루어진 작업도 산간벽지에서 주어낸 자료도 우리 모두가 공유할 때 동학으로서의 우정은 더욱 두터워 지고, 우리 학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 올 것이다.

유물 층위	土 器	石 器	骨 製 品	貝 製 品	土 製 品	中心 時期
1층 (교란)	줄문토기 일본 阿高式土器	타제석부 · 인부마연석부 석착 · 석섬 반원형석기 대석(갈판) · 지석	골각기 자돌구 골제작살 결합식조침 어골제수식	패제수식 패천	이전	
2층	점열문토기 · 이중구연토기 · 단사 선문토기 일본 南北寺式土器	타제석부 · 마제석부 · 편 인석부 · 원반형석기 · 석 착 · 석추 · 고석	골제작살 철두기 골각기	패천		만기
3층	용기문토기 · 지두문토기 · 영선동 식토기 · 태선침선문토기 · 퇴화침 선문토기	흑요석박편 고석 · 지석 타제석부		패천		후기
4층	용기문토기 · 지두문토기 영선동식토기 태선침선문토기 퇴화침선문토기 · 봉계리식토기	보습 · 타제석부 석섬 · 원추형석기 흑요석제 스크레이퍼 대석 · 고석 흑요석제 석촉 · 박편	결합식조침	패천	결상이식	후기
4a층	지두문토기 · 태선침선문토기 단도마연토기 · 퇴화침선문토기			패천		중기
4b층	태선침선문토기	타제석부		패천		중기
5층	용기문토기 · 지두문토기 자돌압인문(영선동식)토기 단도마연토기 세침선문토기 · 태선침선문토기 일본 · 里木式土器	흑요석제석섬 · 석섬 스크레이퍼 · 원반형석기 흑요석박편 · 편인석부 지석 · 고석 · 마석 수정제 스크레이퍼	결합식조침 자돌구 골제작살 골각기 골제수식	패천 패제수식	이전 토우편	중기
6층	용기문토기 · 지두문토기 · 두립문 토기 · 단도마연토기 · 세침선문토 기 · 자돌점열문토기 · 파수부토기 일본 轟式土器	석촉 흑요석박편 · 타제석부 인부마연석기편 지석 · 고석	골각기 결합식조침	패천		조기
7층	용기문토기 · 두립문토기 단도마연토기 · 구순각목토기 세침선문토기 · 무문양토기 일본 轟式土器	흑요석제 스크레이퍼 석섬 · 석촉 · 고석 경석 · 흑요석박편	결합식조침 골각기	패천		조기

1. 東三洞貝塚 淨化地域 層位別 出土遺物 現況(釜山市博 1999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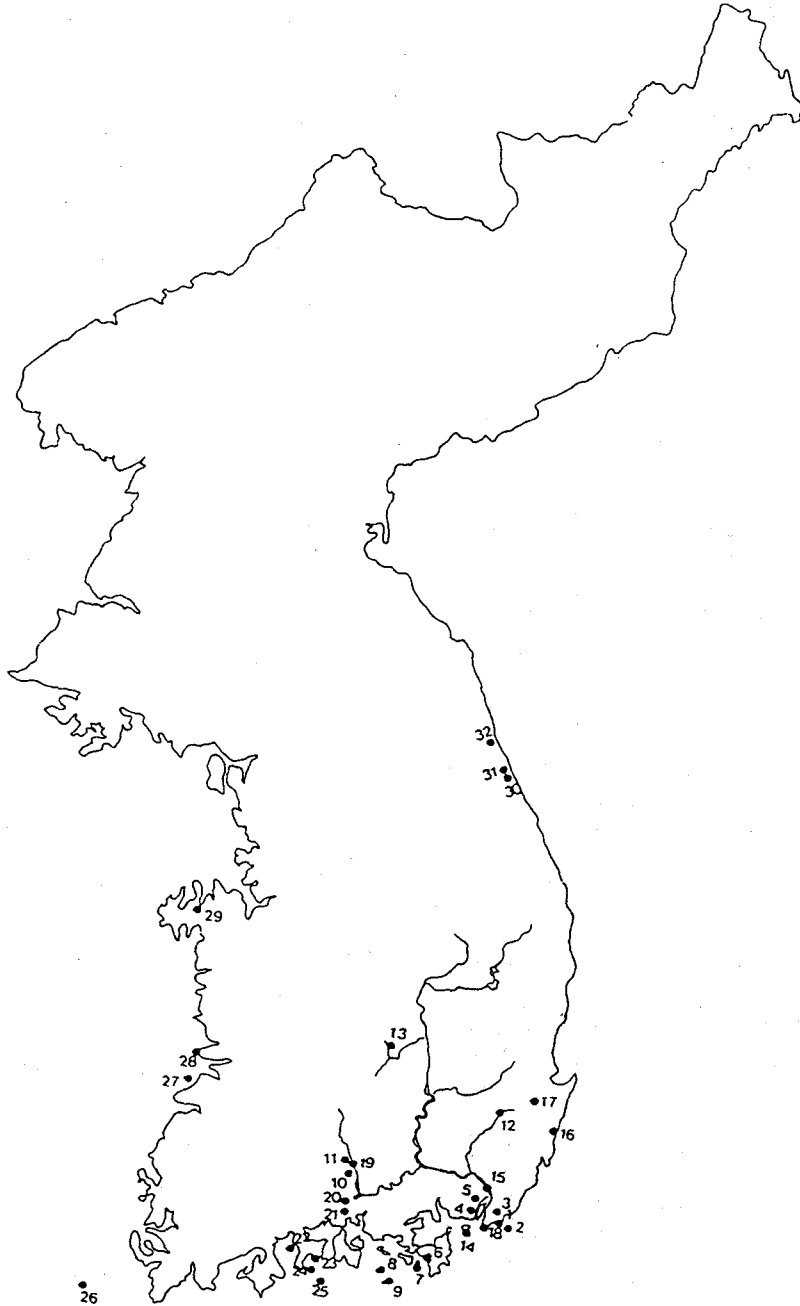


1. 鰲山里 2. 上試 岩蔭 3. 梧津里 4. 牛峰里 5. 新岩里 6. 東三洞 7. 瀛仙洞 8. 凡方 9. 多大浦 10. 煙臺島
 11. 上老大島 12. 欲知島 13. 壬佛里 14. 突山 松島 15. 黑山島 16. 高山里 17. 越高 18. 越高 尾崎

2. 新岩里式土器의 分布圖(李相均 1997에서)

段階	器形斗特徴	
第1段階		① 鰲山里 ② 突山松島 ③ 新岩里 ④ 越高
第2段階		① 突山松島 ②③ 新岩里
第3段階		① 突山松島 ②③ 新岩里
第4段階		①~⑤ 煙臺島 ⑥ 瀛仙洞 ⑦ 凡方

3. 隆起文土器의 器形의 變化와 段階設定(沈奉謹・李東注 1997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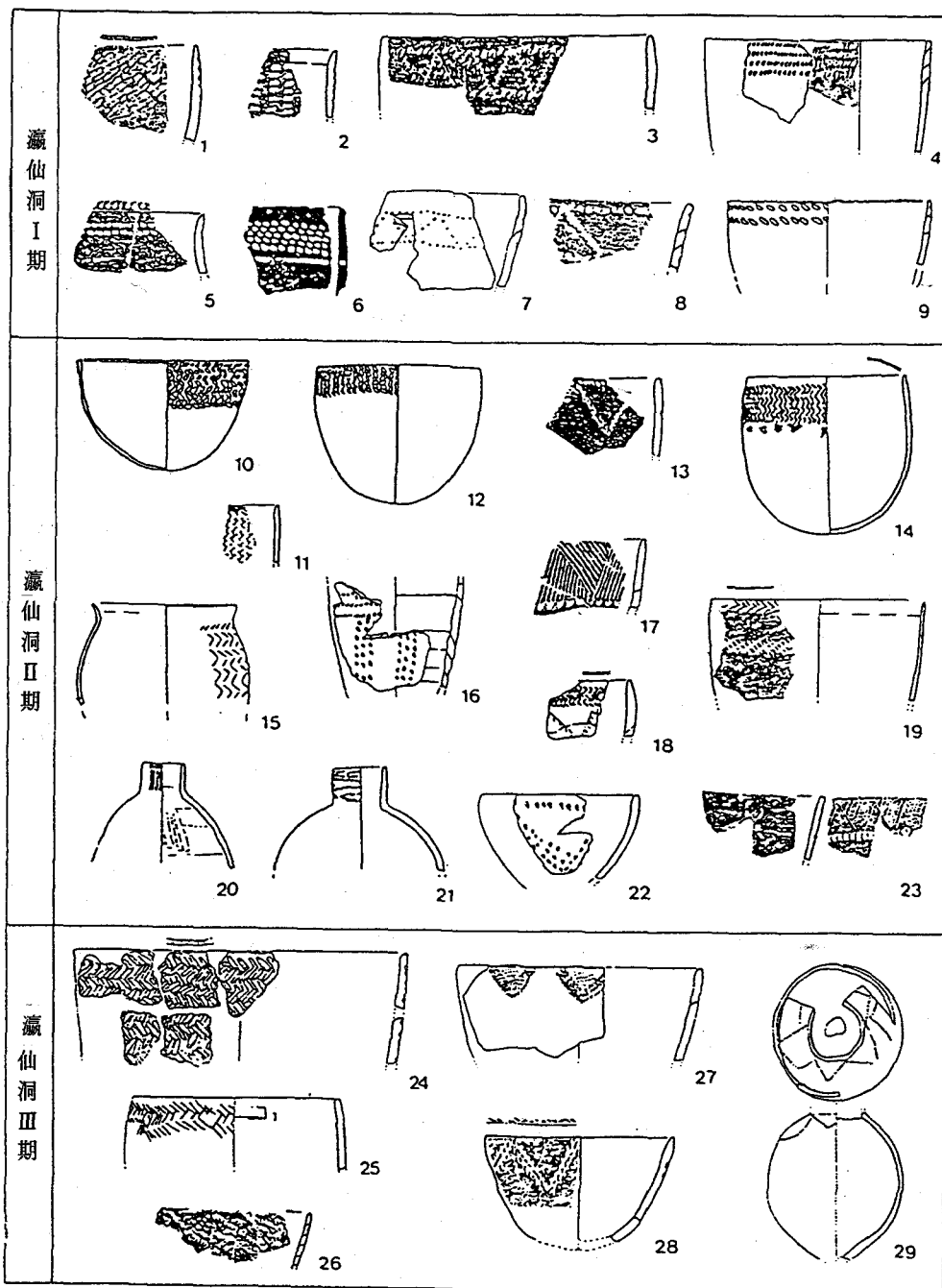


- 1.東三洞 2.朝島 3.瀛仙洞 4.凡方 5.水佳里 6.山達島 7.欲知島 8.煙臺島 9.上老大島 10.下玉房 11.上村里
 12.梧津里 13.松竹里 14.外港浦 15.北亭 16.下西里 17.隍城洞 18.多大浦 19.中村洞 20.門岩里 21.牧島
 22.大鏡島 23.安島 24.松島 25.禾太島 26.下苔島 27.界火島 28.駕島 29.休岩里 30.池邊洞 31.校洞 32.蔡山里

4. 瀛仙洞式土器 分布圖(河仁秀 1997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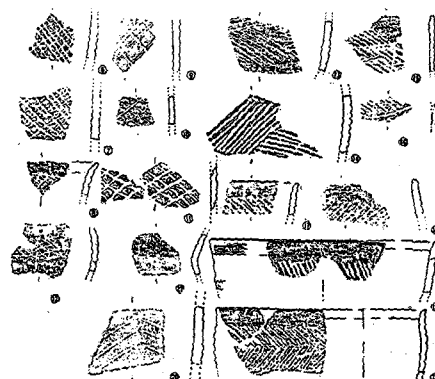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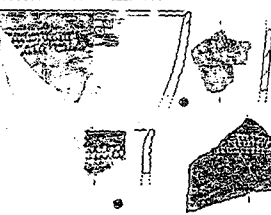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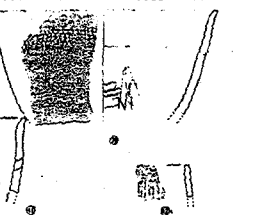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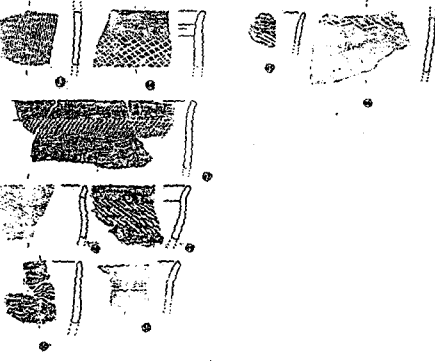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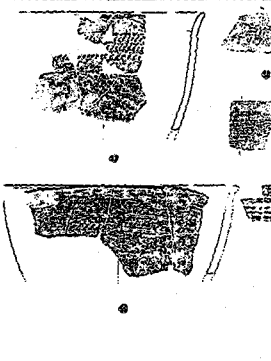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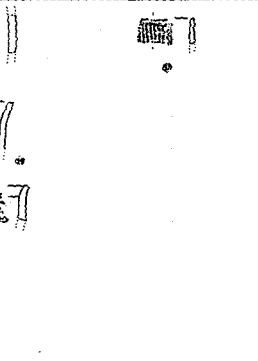
早期	前半	 475 476 461 465 466	 342 341	 462 462	IV層
	後半	 320 306 305 312 334	 281 297 304 296 295	III層	
中期	前半	 280 249 248	 247 275 276		III層
	後半	 208 119 205 126 214	 201 211 207	II層・住居址	
後期	 178 180 181 179 184 186 111 110 108 109	 108 109	II層・住		
末期					

5. 梧津里 櫛文土器 編年表(鄭澄元 外 1994에서)



1.凡方(1~3·5·11) 2.梧津里(4·25) 3.朝島(16·22) 4.東三洞(10·15) 5.水佳里(27) 6.松島(24)
7.煙臺島(8·13·17·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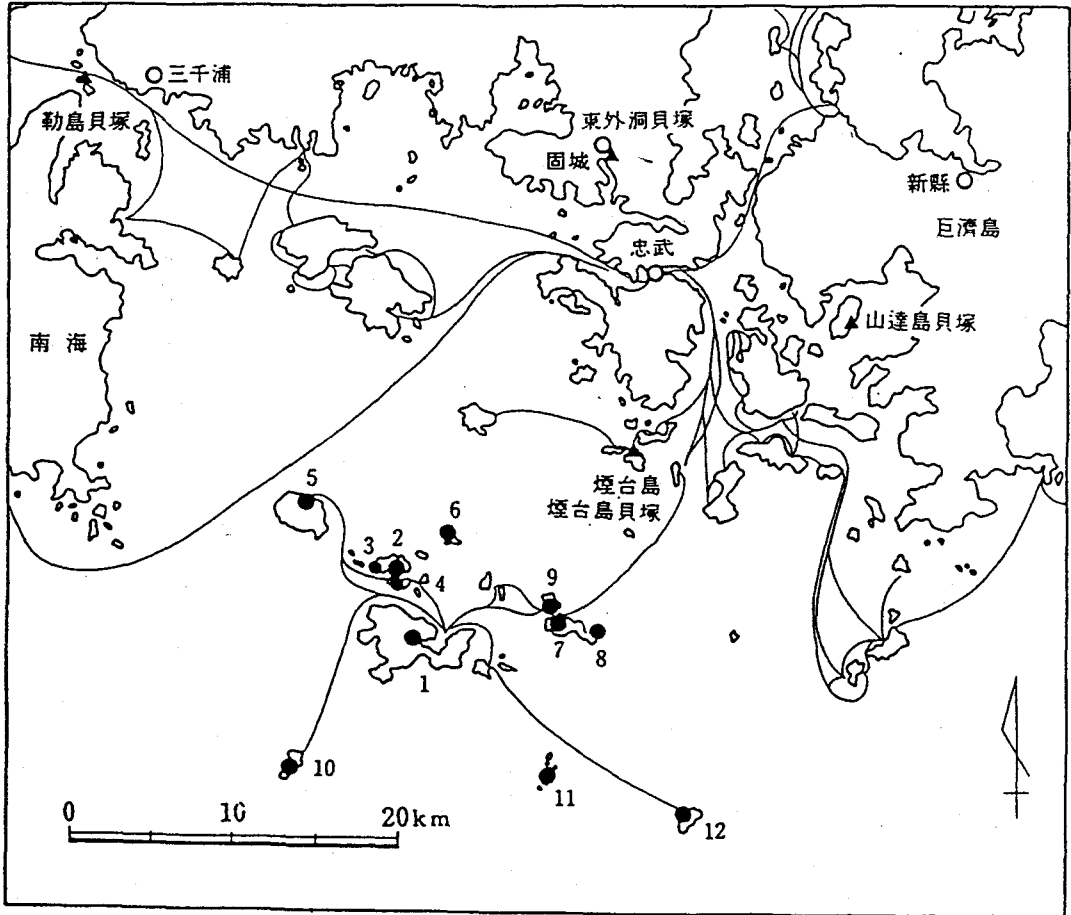
6. 瀧仙洞式土器 編年表(河仁秀 1997에서)

	線 文	點 文	點 線 文
1 段 階			
2 段 階			
3 段 階			
4 段 階			

8. 壬佛里 出土 櫛文土器의 相對編年(安春培 1989에서)

段階	一連番號	文樣	出土地	段階	一連番號	文樣	出土地
1段階	①	斜格子II式	A-2號住居址	2段階	⑩	菱形點線文	A-3號土壙
	②	斜格子II式	A-4號住居址		⑪	V點線文	A-1號住居址
	③	斜格子III式	A-2號住居址	3段階	⑫	斜格子I式	A-3號住居址
	④	斜格子III式	A-4號住居址		⑬	斜格子II式	A-3號住居址
	⑤	菱形集線文I式	A-2號住居址		⑭	斜格子IV式	A-3號住居址
2段階	⑥	斜格子II式	A-1號住居址		⑮	長斜線文	A-3號住居址
	⑦	斜格子II式	A-1號土壙		⑯	短斜線文	A-3號住居址
	⑧	斜格子II式	A-3號土壙	⑰	橫點列文I式	A-3號住居址	
	⑨	斜格子III式	A-1號住居址	⑱	橫點列文III式	A-3號住居址	
	⑩	斜格子III式	A-1號土壙	⑲	橫點列文IV式	A-3號住居址	
	⑪	斜格子III式	A-2號土壙	⑳	橫點列文V式	A-3號住居址	
	⑫	斜格子IV式	A-1號住居址	㉑	橫點列文VI式	A-3號住居址	
	⑬	菱形集線文I式	A-1號住居址	㉒	縱點列文	A-3號住居址	
	⑭	菱形集線文I式	A-1號土壙	4段階	㉓	斜格子I式	A-6號土壙
	⑮	菱形集線文II式	A-1號住居址		㉔	斜格子II式	A-6號土壙
	⑯	菱形集線文II式	A-1號土壙		㉕	形集線文II式	A-6號土壙
	⑰	菱形集線文II式	A-1號土壙		㉖	菱形集線文III式	A-6號土壙
	⑱	長斜線文	A-1號土壙		㉗	長斜線文	A-6號土壙
	⑲	長斜線文	A-1號住居址		㉘	短斜線文	A-5號土壙
	㉑	長斜線文	A-1號住居址		㉙	短斜線文	A-6號土壙
	㉒	文列長斜線文	A-1號住居址		㉚	短斜亂線文	A-6號土壙
	㉓	長縱線文	A-3號土壙		㉛	橫線文	A-6號土壙
	㉔	橫點列文I式	A-1號住居址		㉜	橫點列文IV式	A-5號土壙
	㉕	橫點列文I式	A-1號住居址		㉝	橫點列文VI式	A-6號土壙
	㉖	橫點列文II式	A-1號住居址		㉞	橫點列文VII式	A-6號土壙
	㉗	橫點列文II式	A-1號土壙		㉟	橫點列文VII式	A-6號土壙
	㉘	橫點列文III式	A-1號住居址		㊱	橫點列文VII式	A-6號土壙
	㉙	橫點列文V式	A-3號土壙		㊲	縱點列文	A-6號土壙
	㊱	菱形點線文	A-1號住居址				

9. 壬佛里 櫛文土器 相對編年表에 따른 一覽表(安春培 1989에서)



1. 欲知島 貝塚 2. 上老大島 上里 貝塚 3. 上老大島 山登 貝塚 4. 下老大島 貝塚 5. 頭尾도 貝塚 6. 納島 貝塚
 7. 蓮花島 本村 貝塚 8. 蓮花島 東頭貝塚 9. 牛島 貝塚 10. 葛島 貝塚 11. 佐沙里島 貝塚 12. 國島 貝塚

10. 欲知島 周邊의 遺蹟(李東注 1993에서)